1. 전처리

- 1. 결측값 (none)을 Null값(공백)으로 변경
- 2. 데이터 타입 변경(모든 컬럼 ->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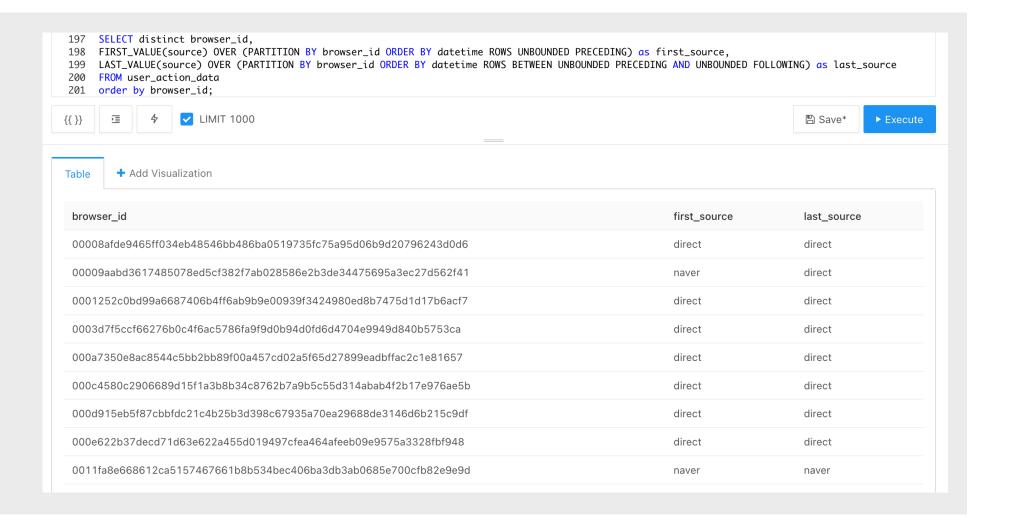
2. 데이터 Import

- purchase_data.csv
- 2. visit data .csv
- 3. user_action_data .csv
- -> purchase_data 테이블
- -> visit_data 테이블
 - -> user_action_data 테이블
- 3. 데이터 이해: 각 고객이 다양한 출처를 통해 여러 차례의 visit 후 purchase하는 여정 데이터. (구매가 없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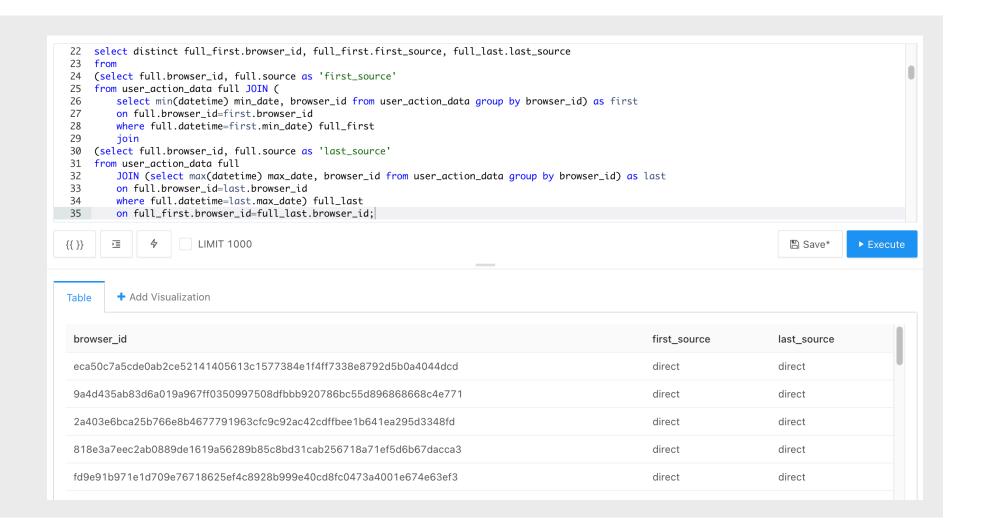
사용자별 첫 번째 유입출처(source)와 마지막 유입출처(source)를 구한 결과

Window 함수 사용한 쿼리



사용자별 첫 번째 유입출처(source)와 마지막 유입출처(source)를 구한 결과

Window 함수 사용하지 않은 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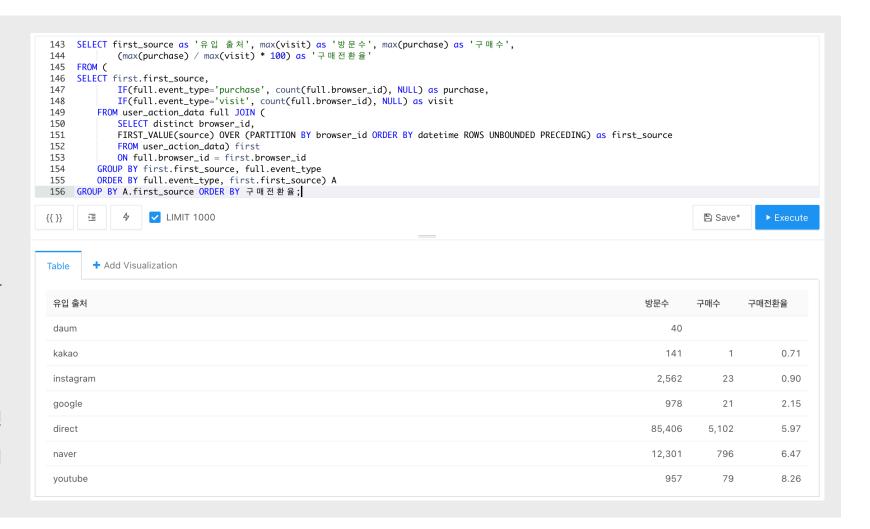
First Click 기여도 모델을 기반으로 구한 각 유입 출처(source)별 전환율 분석

First Click 기여도 모델 기반

First Click 기여도 모델은 고객이 유입한 첫 번째 출처가 전환 가치에 100% 기여했 다고 간주한다.

다음 쿼리 결과에 따르면 957번의 방문 중 79번의 구매가 발생하여 구매전환율이 8.26인 youtube의 구매 전환율이 가장 높다. 이는 youtube를 통해 해당 상품/브랜드를 처음 인지하여 구매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youtube를 통한 상품/브랜드 광고에 예산을 투자하여 구매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First Click 기여도 모델의 상품/브랜드 인지 후 구매 이전까지의 보조채널의 기여효과를 무시한다는 단점과 함께 해당 데이터에서 상품/브랜드를 직접 검색하여 방문, 구매한 절대적인 수치가 높으므로 인지도를 알리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기여도 모델에 따른 분석이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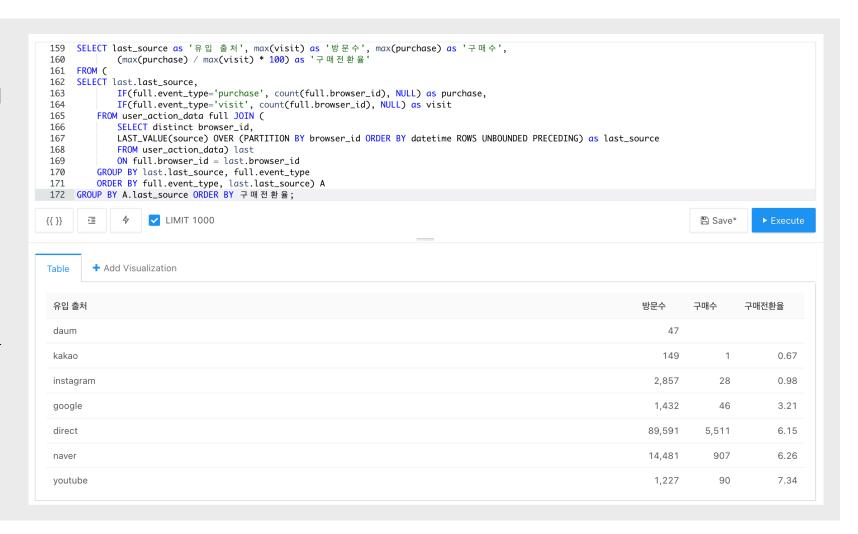
Last Click 기여도 모델을 기반으로 구한 각 유입 출처(source)별 전환율 분석

Last Click 기여도 모델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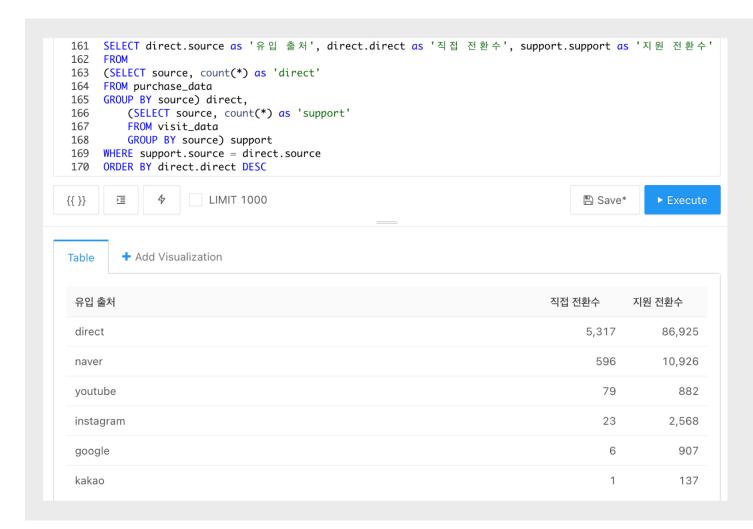
Last Click 기여도 모델은 구매 전환 이전에 마지막으로 유입한 출처가 전환 가치에 100% 기여했다고 간주한다.

다음 쿼리 결과에 따르면 1227번의 방문 중 90번의 구매가 발생한 youtube의 구매 전환율이 7.34로 가장 높다. 이는 youtube 에서 마지막으로 구매를 결심하는 고객이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youtube를 통한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할인율 등의 구매 촉진 요소를 첨가해 구매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방문수, 구매수의 절대적인 수치가 가장 높은 direct 유입 고객들의 구매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direct의 방문수에 비해 구매전환율이 낮은 것은 구입 직전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음을의미하므로 할인 기간이 임박함을 표시하는 등 구매에 확신이 들도록 하는 방법을찾아볼 수 있다.



각 유입 출처(source)별 지원 전환수, 직접 전환수 분석



지원 전환수를 '구매' 전환이 일어나기 이전의 채널로 설정하여 event_type이 'visit'인 모든 행을 count한 결과인데, '구매' 전환이 발생하지 않은 (곧, visit만 있고purchase로 이어지지 않은) 값은 제외되지 않은 결과이다. 우선은, 모든 id에서 구매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쿼리 결과를 분석했다.

유입 출처가 direct인 직접/지원 전환수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구매' 전환을 위한 직접 유입이 많은 것은 해당 상품/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이미 꽤 높아 다른 플랫폼 광고를 통하지 않고 바로 구매하거나, 고민하게 만든다.

따라서 상품/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히 기 위해 direct 페이지의 사용성을 높이고 좋은 이미지 형성에 투자해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플랫폼을 통한 유입이 아닌, TV, 야외 광고 등을 통한 유입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TV, 라디오, 옥외 광고 등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될 경우 해당 광고에 더 투자해볼 수 있다.

또한 direct 다음으로 직접/지원 전환수가 높은 naver에 광고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여 구매 전환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